

2018년 12월 13일, 제주시 이도2동 신설동경로당, 이현정 조사.

고순오(여, 1928년생, 제주시 이도2동)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출생, 고향에서 30여 년간 지내다 이도2동로 옮겨 60여 년간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옛날 의붓딸과 친딸을 키우는 여자가 있었다. 의붓딸은 콩데기, 친딸은 팻데기라 불렀는데 마음씨 나쁜 여자가 의붓딸에게는 콩죽만 주고, 친딸에게는 좋은 팻죽만 먹였기 때문이다. 하루는 여자가 친딸만 데리고 잔치에 가면서 콩데기에게 터진 항아리에 물을 다 기른 뒤에나 오라고 말했다. 때마침 새들이 날아와 터진 항아리를 막아주어 콩데기는 잔치에 갈 수 있었다. 콩데기는 잔치에서 꽃신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콩데기에게 반한 멋진 도령이 꽃신을 주워 신이 발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팻데기는 마음씨가 나빠 멋진 도령과 결혼하지 못하고, 마음씨가 좋은 콩데기는 꽃신이 발에 꼭맞아 멋진 도령과 결혼했다.

[조사자] 콩데기 팻데기 얘기 좀 해줍서.

[제보자] 콩데기 팻데기? 옛날 꿀 두 개 키우멍. 다슴꿀하고 이녁꿀허고 이제 원 꿀은 팻죽만 쑤 멕이고 다슴꿀은 콩죽만 쑤 멕이나네. 팻 맛좋은 거난 이녁 꿀은 팻죽만 쑤 멕이난 막 솔져어. 다슴꿀은 콩죽만 쑤 멕이난.

옛날도 팻죽 세 번만 헤 먹으면 집안 망한덴 우리 헤 낫지 안헛우과. 그 팻도 것이고 또 쌀이 들어야 됩니까. 거난 쌀이 어렵주게 어려워. 거난 기추룩 말이 나났어.

팻데기 어멍이 잔치를 먹으레 가젠 허난, 항에 터진 항에다가 다슴꿀은 이것에 물 하나 7득여 뒤그넹에 오렌 경헤네 지 난 딸만 둘앙 가 불엇거든. 경헌데 어디서 새덜이 막 놀아오라네 그걸 막앗젠 허는 거라. 막아주난 이젠 물을 그 동으로 하나 채왓어. 채완 그 꿀이 이젠 잔치 먹으레 가나네.

어떻헨 물 다 안 채워된 왓넨 허난, 물 다 채왓덴 허난. 이젠 바레 보니까 물은 채완 잇거든. 거난 그 새가 도와줘 분 거라.

경은 헌데 그 다음에는 그 쫓데기는 그디 도령이 멋진 도령이 잇이난. 큰어멍
네 딸을 허젠 허나네 잔치 가젠 하나네. 꽃신을 이젠 한 착을 일러 불언. 한 착
을 그 남자가 봉가네 이 신이 맞는 사름안테 장계가켄 헤그네 거 봉간 헤부난.
다슴딸이 신은 아니고 그 아방 딸이 헤네 그 짝은 잘 텃덴, 결혼헤연.

[조사자] 어디서 들언마씨?

[제보자] 아, 이런 말은 막 어디서 들은 걸 어땜. 막 옛날에, 이젠 옛날 말이지. 게난
‘ㅁ음이 나쁘민 안 댜고 ㅁ음이 좋으믄는 좋은 무시 것이 댜다.’
그 말이지게. 게난 큰어멍이게 큰어멍이 딸도게 ㅁ음이 좋앙 놔두난. 지네 딸만
잘헤주젠 허난 더 안 댜 불엇거든게. 게난 결혼도 건 못허고.

- 핵심어: 쫓데기, 쫓데기, 다슴딸(의붓딸), 쫓죽, 새, 잔치, 도령, 꽃신, 장계(장가), 결혼, ㅁ
음(마음), 딸(딸)